

# "우리가 왜 대통령때문에 힘들어 해야하나"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5.22 21:13

**22일 1만5천명 청계광장 모여 제15차 촛불문화제...장관고시 철회, 전면재협상 촉구, 이명박 대통령 국민요구 무시한 담화 발표에 분노 표출...시민들 "이명박은 이미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

[사진6]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제15회 서울 청계광장 촛불문화제가 22일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등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당일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 기만적 담화를 규탄하고 장관고시 철회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은 "오늘 오후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와 한미FTA 반대 등을 외치며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전국농민대회를 가졌다"고 보고하고 "논을 갈고 밭을 일구는 농민들에게 지금은 1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라서 촛불집회에 많이 참가하지 못하지만 그침없이 촛불을 밝히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굴욕적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 생명을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 우리 농민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 전국 모든 시·군에서 촛불을 들기로 맹세했다"고 결의했다.

이어 촛불집회에 세 번째 참석했다는 고2 여학생은 "국민 의사에 반하는 내용만 심는 조종동은 아직까지도 건물에 불을 켜고 신문을 발행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저는 기자가 꿈인데 제가 만약 기자가 되면 우리 국민들 진솔한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쓰겠다"며 "국민 없이 정부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여러분 모두 촛불을 소중히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오늘 담화를 통해 확실히 보여줬다"고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규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국민주권, 검역주권, 식탁 안전문제를 포함해 15개를 선물보따리로 싸다가 조공으로 바쳤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고시를 발표한다면 우리 국민 대통령 아니라 미국 측사업자와 정치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며, 우리 국민은 양심의 촛불을 끝까지 지키며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은 "이명박 대통령 소위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국민은 군소리 말고 안전하니까 먹어라, 청계광장 나오지 마라, 한미FTA 빨리 체결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경제 살리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이며, 이 상황에서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국민생존권을 송두리째 내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입만 열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정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만큼,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잘못된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8년 전에 의사가 됐다는 한 시민은 "저는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병원노동자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이 자리에 더 많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미국 무역대표부와와의 추가협상을 통해 광우병 위험이 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위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발병한 광우병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청계광장에 모여 전국 방방곡곡으로 촛불행렬을 만들고 있으며 끝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덕윤 전여농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농민운동을 해오면서 많은 농민들이 경찰 폭력을 당했고 경찰 곤봉에 맞아 세상을 떠난 농민 형제가 2명이나 있는데, 사실 농민들 시위 때마다 교통불편을 이야기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서운함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16일 동안이나 초중고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 촛불집회를 이어와 이명박 대통령 사과 아닌 사과를 받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쇠고기를 대한민국에 절대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항복할 때까지 촛불을 이어가야 하며 끝내 세상을 바꿔내자"고 다짐했다.

경북 김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어왔다는 농민 백선철씨는 “미국 놈들도 안 먹는다”는 미국 쇠고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왜 사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요즘 농촌은 모내기과 과일농사 준비 등 매우 바쁜 철이라서 국민 촛불집회에 많이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농사지어 국민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할 것이며,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이 안되도록 농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듣고 화가 나서 올라왔다는 한 회사원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듣고 어이가 없는데,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면 자국민도 먹지 않는 미국 소를 수입하는가? 국민 목숨을 담보로 무역해서 얼마나 경제력을 올리겠다는 것인가?”라고 힐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죽이지 말고, 농민 학생 시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며 “국민이 등돌린 군주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며 미국 소 수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국민을 분노케 하고 더 큰 항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에서 활동한다는 송실대 한 여학생은 “대학교 등록금이 1년에 1천만원이 넘는 시대를 살면서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휴학을 한다”고 전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전에 반액 등록금을 약속하고 당선된 후에는 반액이 아닌 반부담이라고 말해 비난을 샀고, 광우병 쇠고기 문제 역시 등록금 문제와 똑같이 국민을 상대로 말바꾸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식당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사용안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으며 5월31일 1만여명 대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광우병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22일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이어져 참가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난장이 마련됐으며,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와 시민들로 구성된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를 위한 시민촛불합창단’ 공연이 많은 갈채를 받았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굴욕적으로 체결한 한미쇠고기협정문을 국민 손으로 찢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굴욕 협상’이라고 씌어진 흰 천을 국민 분노를 담아 갈갈이 찢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끝내 막아낼 것을 결의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어 말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사를 표명했지만 “내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 절박한 요구는 외면한 채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없이 서울시장 시절 자신 업적만 강조하는 말로 전 국민 빈축을 샀다.

또 “한미FTA는 우리 경제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여전히 한미FTA 비준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하므로 우리가 미국보다 서둘러야 한다”며 한미FTA 비준에 안달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국민은 물론 정치권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FTA 반대! 농민생존권 쟁취! 전국 농민대회’(22일 오후 2시 여의도)에 참가했던 농민들이 대거 결합했다. 또 일본과 남북조선후호회(오카야마) 이모토 타케오 대표와 8명 성원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지난 5월2일 청계광장에서 첫 촛불문화제가 열린 이후 5월22일까지 20일 동안 서울에서만 총 20만명 국민이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22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1백여 곳에서 촛불문화제가 개최돼 전국 지역이 촛불바다를 이뤘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전 국민 촛불이 날이 갈수록 가열하게 타오르고 있다. 국민 요구에 아랑곳없이 이명박 정부는 오는 27일 장관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장관고시를 강행할 경우 부산·인천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유출을 막기 위해 전 조직을 동원하고 운수노조를 중심으로 운송거부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13명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장관고시 철회와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재협상을 촉구,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21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이 광우병 미친 소를 반대하는 촛불로 뒤덮이고 있다.

[사진2]

[사진3]

[사진5]

[사진8]

[사진1]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mailto:kctu@nodong.org)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